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소외된 지역사회와 우선순위 지원 대상 인구에 혜택을 주는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S)에 600만 달러 지원 계획 발표**

*기금, 3년간 150개의 펠로우십 지원*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공평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뉴욕주의 약속 이행, 기후 주간 이전에 발표*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3년에 걸쳐 6백만 달러를 제공하여 현재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우선순위 지원 대상 인구에 150개의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리는 뉴욕 기후 주간 행사에 앞서 이루어진 이 발표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려는 뉴욕 주의 약속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펠로우십은 뉴욕이 미래의 뉴욕 시민들에게 보람 있는 진로를 찾도록 자극하면서 소외된 지역의 개인들에게 기후 정의와 깨끗한 에너지 교육을 지원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기금은 과소대표된 배경을 지닌 뉴욕 시민들에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정부의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뉴욕 시민의 아이디어, 재능 및 전문성을 포착하여 포괄적인 녹색 에너지 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 당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자, 이전 제조업, 환경 정의 지역사회(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 거주자, 재향군인, 미국 원주민 등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우선순위 지원 대상 인구의 전문 개발,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고용주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커뮤니티 기반 조직, 대학, 지방 자치 단체, 기후 기술 혁신기업/스타트업, 청정 에너지 기업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참여 활동,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 파트너십 구축, 청정 에너지 창업 또는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기후 정의와 청정 에너지 우선 순위를 향상시키는 기타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NYSERDA** 사장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개인이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정의 노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단체와 짝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특한 협력을 창출하고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공평한 녹색 전환을 보장하도록 지원합니다."

NYSERDA는 2021년에 약 50개의 펠로우십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최대 100개의 펠로우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정부 및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재단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존 자원과 교통 및 보육 서비스, 교육 및 전문 개발 기회와 같은 종합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EST 기준 2021년 10월 28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고용주는 다른 기업 지원자를 파악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다른 기업이 12개월 동안 수행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개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가을, 코호트 1; 2022년 겨울/봄, 코호트 2; 2023년 겨울/봄, 코호트 3.

NYSERDA는 신청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EST 기준 2021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정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참가자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려면 제목란에 "PON 4772 Climate Justice Fellowship"을 기입하여 [WInfo@nyserda.ny.gov](mailto:WInfo@nyserda.ny.gov)로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정의를 다루는 것은 주정부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에 대해 여러 기관들과 함께 사내에서 일할 동료들에게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NYSERDA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회이며 우리가 기후 리더십 및 지역 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내에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Jessica Ramo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의 갑작스런 홍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치명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뉴욕의 기후 인프라 복원력은 과거보다 개선되었어야 했습니다.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 전역에 리더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님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화석 연료 의존성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투자의 시작일 뿐입니다."

**400 Foundation** 부사장겸 공동 창립자이자 **Historic Emanuel AME** 교회 목사인 **Kahli C. Moot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공기 오염은 우리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녹색 일자리는 경제 정의를 달성하고 뉴욕의 흑인 공동체에 공평한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400년간의 복합적 차별이

끝난 지금, 이처럼 양질의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숨에, 기후 정의 펠로우십은 직업 기회와 지역사회 환경 건강과 안전 모두에서 인종 차별을 없애고, BIPOC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형평성에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애디론덱 노스 컨트리 협회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Adirondack North Country Association Clean Energy Program)의 CEM 디렉터인 Jerrod B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CA는 Hochul 주지사가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ANCA와 같은 조직은 우리가 이미 뉴욕 시민들과 함께 구축한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후 정의 전문가를 위한 사려 깊은 발전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소외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우리는 이 기회와 청정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면서 형평성과 정의를 다루는 다른 NYSERDA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북부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과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통해 제공되며 NYSERDA가 기존 인력 개발 및 훈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약 1억 2천만 달러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0,000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청정 에너지 직업 기회를 늘리고 청정 에너지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 고용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후 정의 펠로우십(Climate Jus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 산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을 위한 인턴십 및 현장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여 차세대 청정 에너지 근로자를 육성하려는 NYSERDA의 관련 노력에 기반합니다. NYSERDA는 뉴욕주 클린 에너지 인턴십(Clean Energy Internship) 프로그램에 9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22명의 인턴십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청정기술을 위한 실무교육에도 1,35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675명의 개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 대다수는 주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우선순위 지원 대상 인구입니다.

NYSERDA의 청정 에너지 인력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21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2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19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5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